

## 카바레와 똑같은 서점의 교통유발부담금

“서점은 문화의 집적물이라 할 ‘책’을 ‘독자’와 연결시켜주는 기능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문화공간”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서점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화를 전담하는 독립부처를 가진 몇 안되는 국가로 손꼽히는 우리.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시행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서 우리의 자부심과 문화공간이라는 서점에 대한 인식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포화상태로 치달는 도심의 숨막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취해진 이 조치는, 서울시와 교통

부가 교통량을 조사해 그 계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기로 한 제도로, 서울과 기타지역 그리고 시내와 변두리지역으로 구분하고 0.24부터 5.46까지 16등급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형서점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도·소매시장의 상점과 똑같은 등급으로 분류돼 4.97이라는 수치가 매겨졌는데, 이 수치는 가장 높은 계수를 차지한(?) 백화점·쇼핑센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계수이면서, 북새통을 이루는 예식장보다는 높은 수치다.

여기서 한뼘쯤 짚어보고 싶은 문제는, 기능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산술적 기준에서 정책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레로 대형서

점과 같은 수치로 측정된 카바레에 몰리는 차량과 지적 성숙을 위해 서점으로 향하는 차량의 ‘의미’를 동격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단순한 수치에 발근해 하는 ‘소심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향락과 사치풍조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는 사회를 걱정하는 우리가, 카바레와 서점이 동일시되는 현실을 모른 채한다면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서점의 영세성을 담보로 ‘좀 봐줘야 한다’는 식의 발상도, 문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종의 ‘특혜’를 기대하는 심리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단지 문화입국을 내세운 정부의 입과 손이 따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따름이다. 진정한 문화입국의 실현을 위해, 서점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 대신 ‘교통유도지원금’을 적용하는 일을 제안한다면 이것도 어불성설이 되는 것일까.

— 최태원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80호 / 1991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沐	金榮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權鍾夏	安秉永
安輝燾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瓊薰	李光周
李基相	李相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煥燾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煥鍾	鄭雲暎	鄭晉錫
鄭鍾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善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延善
黃鉉源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일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으십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최초의 활자 인쇄물: 한국 연세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詩를 모은 28페이지의 「고문진보」는 1160년 경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1973년 11월에 발표되었다. 그전에는 1454년 독일의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1398~1468)가 인쇄한 페이지당 42줄의 「구텐베르크 성서」가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로 인정받고 있었다.

▲최초의 백과사전: BC 370년 아테네에 살던 플라톤의 조카 스페우시푸스(BC 408~338)가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긴 색인집: 1983년 6월 「The Tenth Collective Index of Chemical Abstracts」가 완성되었으며 75권, 13만1445페이지에 2천394만8253가지가 수록되어 있고 무게는 172.3kg이다.

▲문학인 오찬회: 런던의 ‘올드 홀본 식당’에서 1930년 10월 크리스티나 포일(로널드 바티의 부인)이 시작했다.

▲영국 최고가의 인쇄물: 14세기 노담톤 백작부인 엘리자베스가 정교하게 장식한 「시간과 시편」이 1988년 1월21일 런던 소테비에서 런던의 딜러 퀴리치에게 154만 파운드에 팔렸다.

▲최고의 성서: BC 587년경의 것으로 구약의 민수기 6장 22~27절까지 최초의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1979년 예루살렘의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발견되었다.

▲성서에 등장하는 가장 긴 이름: 영문판 성서에 등장하는 가장 긴 실제 이름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들 상정하는(이사야 8장 1절과 3절) 18자의 ‘Mahershalal-hash-baz」이다.

▲가장 길고 많은 편지: 단어수를 기준으로 가장 긴 사적인 편지는 영국 켄트주의 알란 뉴 바안씨가 1982년 1월 3일 쓰기 시작하여 1984년 1월 25일 그의 부인 자넬에게 부친 편지로 140만2344단어이다.

일본의 재무차관과 건설장관을 지낸 비치 노라씨는 1961년 7월부터 그의 부인 미츠키가 죽은 1985년 3월까지 1307통의 편지를 부인에게 썼으며, 이 편지들은 1만3404 페이지, 25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우편물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야구스타 헝크 아론(1934년생)으로 1년간 90만통의 서신을 받았다고 1974년 미국 체신성이 발표했다. 편지 중 3분의 1 정도는 1927년 베이브 루스가 세운 홈런 기록을 깬 데 대한 증오를 표시한 편지들이었다.

▲최고가의 친필서명: 1818년 토마스 제퍼슨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

을 비난하는 자필 서명한 편지로 1936년 10월 29일 뉴욕 소테비에서 36만 달러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찰스 로센블룸에게 매각되었다.

▲최다작 작가: 폴란드의 요셉 이그나시 크라스체브스키(1812~87)는 6백권 이상의 소설 및 역사책을 집필했다.

▲최다 교과서 편집자: 1948년에서 1990년 4월까지 교장선생으로 일한 영국의 로널드 리트(1916)으로 515종의 교과서를 발간하여 9065만부가 팔렸고 「The First English Workbook」은 535만부나 팔렸다.

▲최다부수 판매 작가: 스탈린(1879~1953)의 작품이 6억7205만8천부가 팔렸고 101개 외국어로 배포되었다고 1953년 3월13일 발표되었다.

▲최고령 여성작가: 엘리스 폴록 부인(1868~1971)으로 그녀의 최초의 소설 「Portrait of My Victorian Youth」(존슨출판사)는 그녀가 102세 8개월 되던 1971년 3월에 출판되었다.

▲가장 긴 시: 1958년 발표된 키르키즈의 서사시 「마나스」는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동양문학사전」에 따르면 50만행이나 된다.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재클린 수

잔(어빙 맨스필드 부인, 1921~74)의 「인형의 계곡」(1966년 3월 초판 발행)으로 1987년 3월30일까지 2871만2천부가 팔렸다.

▲최고의 출판사: 캠브리지 대학 신문사는 1584년부터 인쇄와 출판에 해오고 있으며 1534년 7월 20일 모든 종류의 책을 인쇄, 판매할 수 있다는 왕실 특허증을 얻었다.

▲가장 큰 인쇄소: 1864년 설립된 미국 시카고의 R.R. 도넬리 & 선스社로 1백여개의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월 312만달러어치를 인쇄하고 있다.

▲가장 큰 도서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회도서관(1800년 4월 24일 설립)으로 2천6백만 종의 서적과 팜플렛을 포함하여 9천만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1층의 넓이는 26.14ha이고 선반의 크기는 856km나 된다.

지난호부터 ‘독서퀴즈’는 ‘재미있는 책이야기’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7, 78호 독서퀴즈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77호 정답: 1-②르낭 2-③마하바라타 3-①중력과 은총 4-②포이에르바하 5-코란

78호 정답: 1-②이방인 2-①마르탱 뒤 가르 3-③적과 흑